제11강 베르그송의 태제

(1교시)

◆신경계와 뇌
※학습목표: 베르그송의 사고 밑바탕이 되는 신경계와 뇌를 살펴본다.

▲표상의 논리와 비표상의 논리
「*베르그송에게 지각이란 더하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빼기를 통해서 성립한다. 이것은 표상의 논리가 아니라 비표상(非表象)의 논리이다.*
표상의 논리: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다. 대상의 등가물(等價物)이 주체에게 생겨난다(표상='representation'). 이 생겨난 것을 관념, 심상(心像), 표상 등으로 부른다.
비표상의 논리: 세계는 물질(이미지들의 총체)과 (그것과 본성상 단절되지 않는) 정신의 흐름이다. 물질과 정신의 차이는 지속에서의 상이성에 있다. 지각이란 (정신의 한 측면인) 신체가 이미지들의 흐름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냄으로써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지각이란 일종의 '선택'이다. 감정(작용)들(affections)도 이런 선택에 의존한다.」
-represent는 재현이다. 대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근대철학에서 주체는 일종의 거울의 성격을 지닌다.
-베르그송에게 우주는 물질과 정신의 흐름이다. 그런데 물질과 정신은 지속의 성격이 다르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이지만, 물질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공간적이고 법칙적이다. 반면 정신적으로 올수록 점점 더 시간적이고 섬세하다. 즉 질적으로 풍요롭다.
-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대상과의 거리를 둔다. 우리가 사물과 거리를 두고 주체로서 바라보는데, 이것은 베르그송에게 인간고유의 성격이 아니라 생명 진화의 결과다.
-지각은 신체가 이미지들의 흐름에서 무엇을 떠내는 것이다. 정신과 대상이 떨어져 있어서 정신 안에 심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부다 흐름인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떠내는 것이다.
-전체의 어떤 부분은 떨어내고 어떤 부분은 도드라지게 만든다. 이는 자기의 관심과 필요에 입각한다. 즉 지각은 선택적이다. 순수 인식론적 모델과 판이하다. 이미 의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상을 전개하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서 어떤 것들을 솎아냄으로써 어떤 부분이 남는다. 그 남은 부분이 object다.

▲신경
「*베르그송은 신체의 운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신경계에서 찾는다.*」
-신경(神經)의 신은 정신(情神)에서의 신이다. 정은 고도로 압축된 농축에너지로 음기다. 신은 운동하는 것으로 양기다. 또 경은 전체로 뻗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경은 신이 작동하는 네트워크다.
-의지가 작동한 신체가 대상을 형성하는 것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얘기를 생물학적으로는, 그만큼 발달한 신경계를 갖고 있다고 표현된다.
-신경계가 죽는 순간 정신도 죽는다. 반대로 신경계가 남아있으면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신경계는 정신과 거의 동일하다.

www.artnstudy.com

▲신경계의 작동

「베르그송은 신체의 운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신경계에서 찾는다. 심리생리학자들은 유입신경과 유출신경의 순환을 통해서 표상이 성립한다고 설명하지만(프로이트의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도 영향), 베르그송은 신경계를 표상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감각-운동의 기능으로서 파악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능들에 앞서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계는 감각섬유와 운동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섬유들은 운동섬유들의 전초병의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는 통일되어 있으며, 따라서 뇌수(腦髓)와 척수(脊髓) 사이에 본성상의 구별은 없다.」

-감각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운동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감각이다.

-보통 척수는 운동하는 것이고, 뇌수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은 베르그송에게 피상적이다.

▲뇌의 역할

「뇌수의 일차적 기능은 표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척수의 운동에 의지적인 지연을 매개하는데 있다. 뇌수는 일종의 중앙전화국으로서 신체의 선택을 지휘한다.」

-지연은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떤 생명체에 자극이 왔을 적에 그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뇌를 그 안에 모든 정신이 내장되어 있는 저장소의 실체적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뇌는 정신이 작동할 적의 관문이다. 정신이 작동할 때의 도구다

-정신이 물질과 함께 만나서 작동할 때의 매개체가 신체인데, 신체의 기능은 선택이다. 선택을 용이하게 해주고 지위하는 것이 신경계고 그 중에 뇌이다. 그래서 뇌가 없으면 정신작용을 못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뇌가 정신은 아니다.

▲정신, 생명의 위치

-개체는 정신내지 생명을 잠시 담아두는 그릇이다.

-개체가 없으면 정신이 있을 곳이 없다. 그러나 개체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지만 생명은 개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이어짐 자체다. 근본적인 생명은 이어짐 자체고, 그것이 생명의 흐름이며, 각 개체는 그 생명의 정거장일 뿐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시관관계
※학습목표: 베르그송에게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선택과 가능성
「*신체가 선택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신체의 지각이란 대상들에 대한 주체의 가능한 행위들 중에서의 선택임을 뜻한다. 따라서 신경계는 가능한 행동들(actions possibles)의 체계를 세우는데 그 기능이 있다.* 」
-만약 정신, 신경계, 생명이 없다면 가능성possibility도 없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가능성이다. 시간차원으로는 미래다. 만약에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면 미래는 의미 없다.
-언어적으로 하면 if다. if가 성립하려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비로소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된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정론이다.

▲실존주의와 베르그송
-실존주의자들은 흐름의 생명을 거부하고 가능성의 구도를 더 강조한다. 그러나 베르그송에게는 개체보다 흐름으로의 생명이 중요하다. 실존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환원 불가능한 개체, 주체성, '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흐름으로의 생명, 연속성을 거부한다.
-생명의 차원을 강조하면 인간 개개의 독자성이 약화되고, 독자성을 강조하면 인간이 자기도취에 빠져 넓게 볼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Jean-Paul Sartre(1905.6.21~1980.4.15) 프랑스의 소설가, 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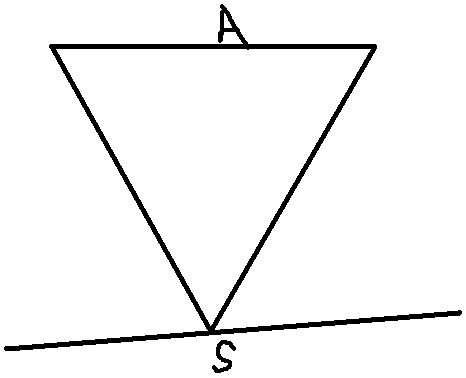
▲생명의 본질
「 *'순수 지각'이란 사실상(en fait)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상(en droit) 존재한다. 실제 지각행위는 기억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베르그송에게 정신의 본질은 기억이다. 그리고 더 넓게는 정신이란 생명의 한 차원이고, 생명의 본질은 기억에 있다. 생명이란 죽음의 극복이고 죽음의 극복이란 기억이다. 개체의 죽음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의 기억을 가능케 하는 한 메커니즘이다.('유전') 나아가 생명이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창조'를 그 본질로 한다.*」

www.artnstudy.com

-정신은 생명의 연장선상 있다. 생명의 본질은 연속성이다. 이것은 기억이다.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기억은 인간 심리의 한 기능을 넘어서 생명자체의 본질이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좁게 유전이다.
-동일성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어지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즉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생명이 창조하면서 진화한다. 그래서 창조적 진화다.

▲현재와 기억
「*생명의 진화는 비결정성의 확장을 뜻하며 의식/정신의 출현은 그 핵심을 형성한다. 기억은 거대한 과거를 형성하지만, 그 과거가 외부세계에 삽입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필요하다. 신체의 지각과 정신의 과거는 항상 함께 작동하며(역삼각형 모델), 현재의 "sensori-moteur"는 좀더 넓게는 "ideo-moteur"의 구도의 한 측면을 형성한다.*」
-베르그송에게 의식이나 정신은 분명 구분된 차원이지만 실체론적 별개는 아니다. 의식이나 정신도 진화의 산물이다.
-현재는 움직이다. 그러나 현재 안에서 엄청난 잠재성, 기억의 저장소가 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현재가 지각하며 움직이면서 기억이 함께 작동한다.

*참고자료



▲두 종류의 기억
「*베르그송은 두 종류의 기억을 구분한다. <u>습관-기억</u>(souvenir-habitude)은 반복을 통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형성되며, <u>이미지-기억</u>(souvenir-image)은 '사건'으로서 성립한다.*」
-습관-기억은 계속 반복하면서 익히고, 그러다보면 기계화된다. 그에 비해 설사 반복되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미지-기억이다.

*참고자료

www.artnstudy.com

Marcel Proust『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김창석역, 국일미디어, 1998

▲재인

「지각작용에서 이 두 가지의 기억은 함께 작동한다. 재인(reconnaissance=recognition)의 문제는 이러한 작동의 이해에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베르그송에게 재인이란 어떤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의 행동을 통해서 성립한다. 베르그송에게 "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표상이 아니라 "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

-재인의 문제는 대상의 동일성의 문제다.

-안다는 것은 할 줄 안다는 것이다. 표상도 할 줄 아는 것을 통해서 성립한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 시간, 행동을 먼저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임상연구와 실증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전체적 기억은 보존되어 있는데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환자들('정신맹'), 대상은 지각하지만 기억은 떠올리지 못하는 환자들('기억상실증')이 확인되었다. 베르그손은 이런 경우들을 습관체계와 기억의 붕괴를 통해서 설명한다.」

▲현재의 관심과 잠재성

「베르그손은 지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습관체계를 '운동적 도식(le schème moteur)'을 가지고서 설명한다. 이 도식은 이미지들의 흐름으로부터 선택과 조직화를 이루어내는 도식으로서, 이 도식의 작동을 통해서 지각과 운동의 관련성이 해명된다. 현재의 관심이 잠재성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현재에 주목할 적에 과거는 수면 위로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에 관심이 멈추고 현재의 관심에서 해방되었을 때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고 회상한다.

-다른 한편 바쁘면 바쁜대로 그 바쁜 과정에서 생긴 이미지들은 기억 속에 축적된다.

▲주의 집중된 지각

「이것은 주의(attention)의 문제와 연관된다. 자동적인(automatique) 지각은 현재의 활동이며 습관의 활동이지만, 주의가 집중되는 지각은 과거가 현재로 나아가는 활동이며 기억의 활동이다.

뇌는 저장소가 아니라 교환국이다. 다시 말해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생명이 작동할 때 그 교환국의 역할을 한다. 베르그손은 정신을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생명의 실재성을 기억에 대한 탐구를 통해 확신한다.」

-정신을 독자적인 실재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생명의 연장성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을 물질로 환원시킨 것은 아니다. 정신은 엄연히 실재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www.artnstudy.com

▲순수기억의 위치

「*순수 기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베르그손은 순수 기억을 잠재성/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subsister"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잠재성의 차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억도 생명도 존립할 수 없다.*」

-베르그송에게 정신은 exist한 것이 아니다. subsist한 것이다.

-현실 속에서 틈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베르그손의 잠재성은 항상 현실로 나타난다. 이를 베르그소은 기억, 정신분석학은 회귀, 중세철학은 보편자, 프로이트는 무의식, 들뢰즈의 사건이다.

www.artnstudy.com